

원예심리치료가 결손가정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강종구^{1*}, 이남숙²

¹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²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Horticultural Therapy on the Emotional Stability of Children From Broken Homes

Jong-Gu kang^{1*} and Nam-Sug Lee²

¹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Welfare

²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요약 본 연구는 결손가정아동에게 원예심리치료 실시 후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검증하여 아동의 정서적 우울, 스트레스, 사회성, 자아존중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생애주기적 방법에 따라 시설에 입소되어있는 13명의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은 2010년 9월 2일부터 2010년 12월 16일 까지 총 14회기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와 요약은 다음과 같다. 원예심리치료의 사회성은 사전 2.23, 사후 2.76 변화가 .53점 높아졌으며 스트레스 대처 능력 값은 사전 2.30, 사후 2.82로 사후 스트레스대처능력 값이 .52점 높아졌으며 유의미하였다.($t = -1.4398, p < .05$). 사전 불안감 값이 1.60, 사후 불안감 값이 1.45로 사후 불안감 값이 .15점 낮아졌으며 유의미하였다.($t = -2.3842, p < .05$). 사전 자아존중감 값이 2.50, 사후 자아존중감 값이 2.92로 사후 자아존중감 값이 .42점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1.1871, p < .05$). 사전 정서평가 값이 3.20, 사후 정서평가 값이 2.05로 사후 정서평가 값이 1.15점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4599, p < .05$). 이 결과를 토대로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horticultural therapy on children from broken homes: this treatment program, implemented in the social welfare field, targets the children's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and emotional stress. Its object was composed of 13 lower grade students enrolled in special facilities according to the life-cycle method, and its data were collected as making use of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was practiced 14 sessions in total from September 2nd to December 16th, 2010, and its results in summary are as follows;

The sociality in horticultural therapy was higher by .53 point in 2.76 after practice than in 2.23 before practice, and its value of the ability to cope with stress was higher by 0.52 point in 2.82 after coping with stress than in 2.30 before that. That was meaningful ($t = -1.4398, p < .05$). The value of anxiety was lower by .15 in 1.45 post-anxiety than in 1.60 pre-anxiety, and that was meaningful ($t = -2.3842, p < .05$). The value of self-esteem is higher by .42 in 2.92 post-self-esteem than in 2.50 pre-self-esteem, and that was strategically meaningful ($t = -1.1871, p < .05$). The value of emotional assessment was higher by 2.05 in 2.05 post-emotional assessment than in 3.20 pre-emotional assessment, and that was strategically meaningful ($t = -2.4599, p < .05$).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is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should apply to the issues of children in social welfare field as one of various approaches.

Key Words : Horticultural therapy, Children from broken homes, Anxiety, Emotional assessment, Self-Esteem, Social welfare field.

*교신저자 : 강종구(kang65sw@hanmail.net)

접수일 11년 03월 09일 수정일 (1차 11년 03월 23일, 2차 11년 03월 30일, 3차 11년 04월 01일) 게재확정일 11년 04월 07일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와 핵가족화는 가족구조를 변화시켰으며 증가하는 이혼율은 노인부모세대가 손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거나 한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육에 따른 심리, 정서,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손가정(Broken Family)아동이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나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유기, 방임 등의 이유로 자녀들과 별거하고 있는 가정으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부모양육가정, 이혼가정, 청소년가정 가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아동들의 특성은 부모로부터 양적지지가 부족하여 다양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대인관계,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있어 학업성취도 및 학업중도탈락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상실감과 정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자아실현을 위한 실천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아동교육의 중요성은 교육, 보건, 영양, 사회보호등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생애주기적 프로그램으로 창의적 교육활동, 문제해결향상, 자주적 학습태도증진, 사회성 함양 등 인지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지만 결손 아동들에게는 보편적 교육을 통한 교육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탈선과 삶의 질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결손 아동의 교육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원예심리치료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매개로 키우고 가꾸고 자르며 꽃을 피우는 양육적인 체험을 통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아동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예방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자는 원예심리치료프로그램을 결손 아동들에게 적용하여 결손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연구 결과로 도출하고, 원예심리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 스트레스, 불안감, 자아존중감,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원예심리치료를 결손아동에게 직접 실시하여 아동의 사회성, 스트레스, 불안감, 자아존중감, 정서의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원예심리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변화에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원예심리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우울변화에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원예심리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스트레스변화에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4] 원예심리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불안감변화에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5] 원예심리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변화에 효과는 어떠한가?

1.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조사지역, 연구방법 등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전북에 위치한 아동시설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시간 변화에 따른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인과성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2.1 원예심리치료개념

원예심리치료는 식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을 통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생명을 매개체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까지 높임으로써 청소년의 자아개발에 매우 기대 효과가 큰 대체 의학적 개념이다. 또한 다양한 매체접목이 가능함으로 연구, 개발, 교육하여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원예심리치료와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한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적응력을 높여 재활을 추구하며 넓게는 복지의 기본인 삶에 질의 향상에 기여하여 재활을 꾀한다.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예방교육 사업과 직접 개입을 통한 사후 조치와 서비스도 실시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병원이나 기관, 학교에서도 원예심리치료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식물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공유하고 상관 관계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활동으로 보여지며,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자기표현과 인내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2.2 선행연구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는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손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감정조절, 책임감에 대한 연구를 원예심리치료를 통하여 아동에 미치는 연구결과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윤숙은 빈곤결손가정 아동의 정서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에 필요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켰으며, 시설보호 아동의 집중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이윤숙, 2006).

박영신은 대다수 아동이 원예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화 능력 등의 사회 적응 행동이 발달하였고, 재료를 나누어 쓰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아동은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집단의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정서적 만족감을 얻게 되어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박영신, 2006).

신용균은 빈곤결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상자 특성에 따른 개별 평가 결과 수업 초반에 보이던 자리배정에 대한 불만, 자리이탈 행동들이 후반에 가서는 보이지 않았으며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는 질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초반에 선생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말, 욕설 등의 관심 끌기 행동과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였으나 후반부에는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식물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며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졌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 성취감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집중력과 적극성이 높아졌음을 관찰 할 수 있었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신용균, 2006).

강해자는 아동의 불안, 우울감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보여 아동의 정서 안정에 원예심리치료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강해자 등, 1999; 박승현 등, 1999),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부분에서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하여 정서적 부분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원예심리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일동은 대상자 전체의 사회성 검사지 평가 결과 원예심리치료 실시 후 친구관계, 감정조절, 책임감 항목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나, 자기통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식물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는 수업에 대한 열성을 보였으며 집단내의 규칙성을 인지하여 지켜나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작업을 하는 것보다 공동 작업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빈곤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일동, 2006).

이러한 연구결과가 최근 학계에서 결손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과 개발을 하고 있어 본 연구도 아동의 사회성, 스트레스, 불안감, 자아존중감,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3.1.1 실험집단

본 연구의 원예심리치료는 전주시에 위치한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저학년 1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9세이다.

3.1.2 원예심리치료프로그램계획

치료 프로그램의 평가는 프로그램 실시전과 실시 후를 관찰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여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활동 프로그램 과정마다 아동들의 정서에 맞도록 프로그램에 이름을 붙여 흥미를 높였다. 아동들의 정서적인안정과 스트레스, 불안감, 사회성, 자아존중감, 등의 극복을 위한 부분을 원예심리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와 안정을 높이는 것을 선행목표로 정하고 이에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했다.

첫째, 정서적 향상과 자신감을 고취하며 자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식물을 옮겨 심고, 흙을 만지고 가꾸는 반복적인 작업을 실시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 고취, 식물 재배, 생명체의 소중함과 보람, 인식 등 아동들이 보살핌의 존재에서 보살핌 대상이 있음으로 대인관계가 형성되며 식물의 싹이 나고 자라면서 가꾸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둘째,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싹을 기르고 재배하여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선생님과 친구에게 배풀며 자르고 붙이는 재활용을 이용, PT병 작업, 토피어리, 꽃꽂이, 다육식물과 관엽식물의 차이점, 내 마음을 열어봐 등 하나밖에 없는 화분을 만들어보고 식재하면서 부모의 부재, 방 문화, 게임의 문제해결, 생명, 가정, 또래의 소중함 인식 등 보호를 받는 대상에서 선물을 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불안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쁨을 가지게 진행 했다.

셋째,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꽃에 관련된 그림과 이야기를 해주며 기억력을 촉진하고 식물 이름을 외우게 하고 반복적 질문을 통해 변별력과 언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 체조, 웃음, 박수 등과 함께하여 원예 심리치료 효과를 배가 할 수 있게 하였다.

3.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특성, 사회성, 스트레스, 불안감, 자아존중감, 정서를 사용하였다.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서

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사회성과 불안감은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표 1] 조사도구

구분	조 사 내 용	문항
응답자 일반사항	성, 연령, 혼인여부, 학력, 소득유무, 가구원수, 동거가족, 경제활동, 거주기간, 주택소유형태, 장애 및 질병	11
정서	침울한, 만족스러운, 안심되는, 두려운, 슬픈, 뿌듯한, 걱정스러운, 무기력한, 실망스러운, 행복한, 긴장된, 침착한, 생동감 있는, 초조한, 희망찬, 안전부절한, 차분한, 거리낌 없는, 무가치한, 편안한	20
불안	마비된 느낌, 흥분된 느낌, 다리가 떨림, 편안하게 못침, 두려움, 어지러움, 심장이 두근거림, 침착하지 못함, 무서움을 자주느낌, 신경과민, 질식할 것 같음, 손이 떨림, 안전부절함, 미칠 것 같음, 숨쉬기 곤란함, 죽을 것 같음, 불안한 상태임, 소화기 안됨, 기절할 것 같음, 얼굴이 붉어짐, 땀을 많이 흘림	21
스트레스	해보려고 노력함, 잘 견디어나감, 문제해결위해 노력, 원하는 것 노력, 감정을 숨김, 약물사용 등으로 기분 전환함, 분풀이를 함, 믿지 않음, 운동을 함, 화를 잘냄, 타인의 동정을 받아들임, 느낌공유, 활동에 몰입함,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임,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랍	15
사회성	잘 참음, 자신소개,의문제기, 주장양보, 적절한 행동, 좋은점이야기, 참여권유, 시간활용, 학습과제수행, 쉽게사귀, 적절한 대응,어른과잘 참음 비판을 잘 받아들임,대화를 잘이끌어감,시간활용, 숙제를 잘함, 적절한 표현, 의견을 잘 받아들임, 칭찬잘함, 지시를 잘따름, 협력, 정리정돈, 친구를 도와줌, 참여를 잘함,집단에 스스로 참여, 적절한 참여, 참여하는 친구부시,정리정돈잘함, 교사해주목, 적응을 잘함, 잘어울림	30
자아 존중감	가치있는 사람, 좋은 성품,실패한 사람,일을 잘 할 수 있음, 긍정적 태도, 자신에 만족,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음,쓸모없는 사람,좋지않은사람이라는생각,	10
전체	문항106	

[표 2]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

N O	Date	Program
0	10. 6.20	설문지조사, 프로그램 선별 계획
1 회기	9.2	반갑습니다. 소개하기(설문)
2 회기	9.9	내 마음에 화초 심기(피티화분)
3 회기	9.16	내 마음에 꽃 피우기 (토기화분)
4 회기	9.30	내 마음을 열어봐 (플라주)
5 회기	10.7	내 마음에 물주기 (수경재배)
6 회기	10.14	앗! 식물이 살졌네 (토기다육식물)
7 회기	10.28	내가 옷어요(재활용의 모미걸이화분)
8 회기	11.4	내 마음을 같이하기(토기 화분식재)
9 회기	11.11	좋은 향기 나쁜 냄새 (포푸리주머니)
10회기	11.18	내가 자라요 (새싹 키우기)
11회기	11.25	함께 해요 (샌드위치)
12회기	12.2	성탄트리 (대형리스)
13회기	12.9	내 마음이 시원해요 (안개분수)
14회기	12.16	나는 매일 매일 자랄 수 있어요(마무리)

3.3 조사절차 및 기간

본 연구는 2010년 9월 2일에 생활시설에 거거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13명씩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실험집단으로는 시설의 저학년 아동으로 2010년 9월 2일부터 2010년 12월 16일까지(기관A) 매주 1회 2시간씩 총 14회(28시간)의 원예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원예심리치료프로그램에는 본 연구자가 직접 개입했으며 1~2명의 보조치료자가 함께 참여했다.

3.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사회성, 스트레스, 불안감, 자아존중감, 정서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차이 분석을 위해 모수 검정법인 Paired samples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Window 12.0 프로그램에 대응표본 t검정 (Paired Samples t-test)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결손가정아동의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전과 실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정서적 안정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측정하였으며 T값과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4. 조사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전제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예심리치료를 실시한 자료를 근거로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를 측정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으로 성별, 종교, 연령, 부모 생존여부, 출생순위, 입소동거가족 여부는 표 3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58%, 여자 42%로 나타났다. 연령은 8세 23%, 9세 54%, 10세 15%, 11세 8%로 9세가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8세의 23%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생애주기적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선정된 결과이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자	7	58
	여 자	6	42
	계	13	100
종 교	기 독 교	13	100
	천 주 교	0	0
	불 교	0	0
	무 교	0	0
	기 타	0	0
	계	13	100
연 령	8세 이하	3	23
	9세	7	54
	10세	2	15
	11세	1	8
	12세	0	
	13세 이상	0	
계	13	100	
부모생존여부	가 출	4	33
	수 감	0	0
	사 별		0
	이 혼	9	67
	기 타	0	0
계	13	100	
출생순위	1 남	3(첫째)	
	2 남	3(둘째)	
	3 남		
	1 남 1 녀	1(첫째)	
	1 남 1 녀	2(둘째)	
	1 남 2 녀	2(셋째)	
	2 녀	1(첫째)	
	2 녀	1(둘째)	
계	13	100	
가구원수	본인포함()명		
입소동거가족	본 인	3	24
	자 매	2	12
	오 누 이	5	28
	형 제	3	24
	기 타		
계	13	100	

4.2 원예심리치료 사전사후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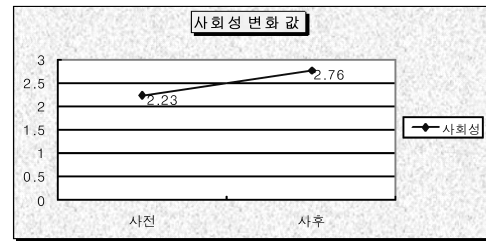
4.2.1 사회성

[표 4] 사회성에 대한 반응도

집단	N	사 전		사 후		t-value	P
		M	SD	M	SD		
사회성	12	2.21	2.23	2.10	2.76	0.373	.71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사전, 사후 사회성 변화에 대한 평균차이 분석을 위해 모수 검정법인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사회성은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3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사전 사회성 값이 2.23, 사후 사회성 값이 2.76으로 나타나서 집단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후 사회성의 변화가 .53점 높아졌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사회성 점수의 평균변화

식물은 녹색이 전하는 생명력이 가장 우수한 매체 역할을 한다. 이런 생명력이 주는 공감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고취시키고 고취된 마음이 선생님과 또래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소중한 인식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형성하고 이웃과 어른에 대한 정성과 공경심이 높아지고 특히 내가 어떻게 보살피는가에 따라 더 많은 꽃과 열매가 열리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4.2.2 스트레스 대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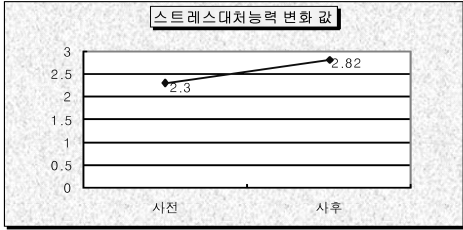
[표 5]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집단	N	사 전		사 후		t-value	P
		M	SD	M	SD		
스트레스	12	2.46	2.30	2.62	2.82	-1.4398	.05*

P < .05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사용하지 않는다’의 1점에서 ‘자주 사용 한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사전 스트레스 대처능력 값이 2.30, 사후 스트레스대처 능력 값이

2.82로 사후 스트레스대처능력 값이 .52점 높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t = -1.4398, p < .05$)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평균변화

식물 심기는 창의적이고 활동적이어서 풀을 뽑거나 자르거나 이식하는 과정에서 운동력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아동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활동임으로 호기심이 높아졌다.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문장력과 발표력이 향상되었으며 자율적 학습태도가 형성되고 정신건강이 높아짐으로 스트레스가 해소 되었다. 오감을 통한 신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운동력향상과 감수성이 풍부해짐으로써 아동들의 정신건강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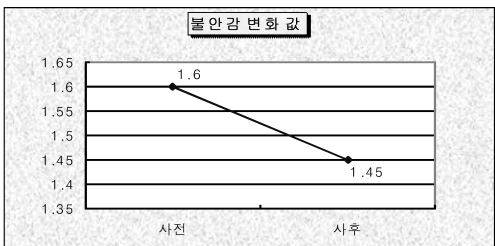
4.2.3 불안감

[표 6] 불안감에 대한 반응도

집단	N	사 전		사 후		t-value	P
		M	SD	M	SD		
불안감	12	1.50	1.60	1.97	1.45	-2.3842	.05*

$P < .05$

불안감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1점에서 ‘심하게 느꼈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전 불안감 값이 1.60, 사후 불안감 값이 1.45로 사후 불안감 값이 .15점 낮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t = -2.3842, p < .05$)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불안감 점수의 평균변화

원예활동 이후 작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물을 주고, 햇빛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열매가 잘 열리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잘라주어야 하는지 경험하면서 집단감이 형성되었다.

잘 관리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또래관계가 높아졌으며. 새싹의 결과물을 가지고 함께하는 기쁨과 감수성과 자신의 소중함을 알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고취되었으며 불안감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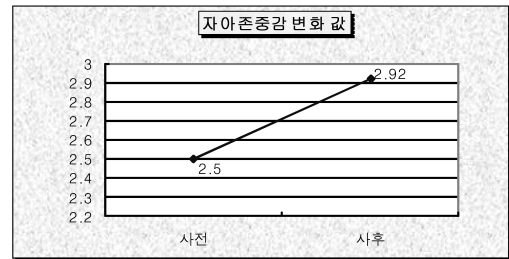
4.2.4 자아 존중감

[표 7] 자아존중감에 대한 반응도

집단	N	사 전		사 후		t-value	P
		M	SD	M	SD		
자아존중감	12	2.80	2.50	2.43	2.92	-1.1871	.05*

$P < .05$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전 자아존중감 값이 2.50, 사후 자아존중감 값이 2.92로 사후 자아존중감 값이 .42점 높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1.1871, p < .05$).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변화

매우 표정이 없던 아동들이 표정들이 밝아지고 웃음을 짓고 먼저 다가서는 마음을 통해 서로에게 지지를 하면서 꿈을 형성하고 나를 찾는 자기 자신의 소중함과 함께 식물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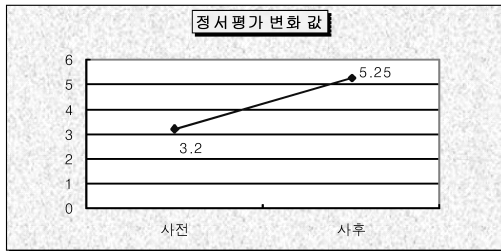
4.2.4 정서평가

[표 8] 정서에 대한 반응도

집단	N	사 전		사 후		t-value	P
		M	SD	M	SD		
정서	12	4.75	3.20	3.48	5.25	-2.4599	.05*

$P < .05$

정서평가는 ‘전혀 없다’의 1점에서 ‘상당히 많다’의 7 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평가는 좋은 것을 의미한다. 사전 정서평가 값이 3.20, 사후 정서평가 값이 5.25로 사후 정서평가 값이 2.05점 높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4599, p<.05$).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정서 점수의 평균변화

시설 아동들의 정서는 매우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며 표정도 반응이 없고 필요한 말만 전할뿐 감성적으로 매우 약하다는 특징이 있었으나 식물에게 끊임없이 말을 전하고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떠나간 가족애를 떠올리며 나도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가고 식물이 전하는 감각을 통해 직접 대화를 하고 “사랑해”라는 반복적 언어를 통해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함양됨을 알 수 있다.

5. 결과

5.1 결과분석

개별 및 집단치료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가 느끼는 소외감이나 정서적 불안감과 생활시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식물이 매체 역할을 가능하게 했다. 사회성 값이 2.23, 사후 사회성 값이 2.76으로 나타나서 집단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후 사회성의 변화가 .53점 높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잘 보살펴주지 않으면 식물이 시들고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더니 서로가 격려하여 완성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회성이 높아졌다. 정서평가 값이 3.20, 사후 정서평가 값이 5.25로 사후 정서평가 값이 2.05점 높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4599, p<.05$). 자매인 1학년 김00은 언니하고 불편한 관계였으나 회기 때의 피드백때 물을 잘 주었다거나, 잘 관리 하지 못하는 언니 것을 내가 돌보아 주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긍정적 피드

백의 효과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형성감이 높아지면서 언니와의 관계개선에도 도움을 주었다. 언니가 대답을 회피하거나 고개를 숙이면 대신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친화력을 높였으며 말을 많이 하고 대답을 잘하는 자신감을 높였으며 초조감이 줄어들어갔다. 자아존중감 값이 2.50, 사후 자아존중감 값이 2.92로 사후 자아존중감 값이 .42점 높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1.1871, p<.05$). 특히 또래관계가 많이 개선된 점은 옹호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 것과 나도 사랑을 주고 내가 가꾸는 식물을 통해서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사전 스트레스 대처능력 값이 2.30, 사후 스트레스대처 능력 값이 2.82로 사후 스트레스대처능력 값이 .52점 높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1.4398, p<.05$). “앗 ! 식물이 살겠네”의 토기다육식물 시간에는 식물의 잎이 풍뎡한 것과 얇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서로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람마다 각각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서 부모님의 현 상태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환하게 웃기도 하였다. 좋은 향기 나쁜 냄새의 포푸리 주머니를 만들 때 부모님을 만나면 주겠다며 열심히 만드는 모습에서 부모와의 갈등상황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전 불안감 값이 1.60, 사후 불안감 값이 1.45로 사후 불안감 값이 .15점 낮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2.3842, p<.05$). 처음에는 어색해 하고 선생님과의 라포형성이 어려워하던 대상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에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거나 프로그램이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에는 짐을 정리하거나 차에 실어주며 선생님과 스킨십을 많이 했다. 자기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남학생이 놀리면 웃으면서 대응하는 등 불안감이 낮아졌다. 안개분수를 통해서 우리 집 정원에도 이런 화분을 만들어서 놓으면 참 좋겠다는 말에 가족에 상황을 인식하고 재 가족을 구성함으로써 억압된 감정을 정리하는 듯 했으며 스트레스나 정서적 불안감은 낮아지고 또래관계 사회성은 높아지면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어 호기심을 충족하여 기다리는 원예수업으로 이어졌고 학업이 원만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원예심리치료의 목표를 달성 하였다고 볼 수 있다.

5.2 논의

5.2.1 원예심리치료가 결손아동의 사회성, 스트레스, 불안감, 자아존중감,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되는 변수의 향상을 제시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

다.

본 연구는 원예심리치료프로그램과 만족도조사의결과를 통계적 유의미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원예심리치료에 참여한 아동들의 스트레스대처 능력, 불안감, 자아 존중감, 정서평가에 대한 사전, 사후 점수의 변화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사전 사후의 변화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사회성 값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심리치료의 불안, 우울감, 자아존중감, 정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불안, 우울감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보여 아동의정서 안정에 원예심리치료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강해자 등,1999; 박승현 등,199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원예심리치료를 통한 불안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정서가 효과가 나타난 것은 공동가족생활을 하는 아동들이 서로 비슷한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통해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감으로써 원예심리치료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다.

둘째, 사회성의 값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기관의 특성상 수용시설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아동들의 특성상 다양한 부류의 집단이기주의가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변수 불안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정서는 단기적 프로그램에도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지만 사회성은 더 많은 시간이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 결과에서 사회성이 높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사회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은 아동의 행동변화를 단시간에 가져 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지속적인 원예심리치료를 통한 아동의 사회성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동이 원예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화 능력 등의 사회적응 행동이 발달하다고 한 연구(신용균, 2006)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결손아동들의 불안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정서 행동변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원예심리치료는 우리나라의 아동, 비행청소년, 결손아동 등에 프로그램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소수의 결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적 연구로 후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를 제언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사회성 향상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중 정서적부분이 특히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식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의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며 알파파의 증가는 생애초기적 관점에서 결손가정아동의 심리적 내면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 할수 있는 뇌파 연구에 따른 임상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한 지역과 한 집단만 연구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다양한 집단과 대상에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 원예치료프로그램의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원예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사를 훈련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수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사회사업과 사회복지현장에서 프로그램의 실현성이 높게 제공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5.3 건의 및 개선요망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발전된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위한 몇 가지 개선을 요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과 욕구 등을 파악하고 교사들의 참여도를 유도하는 오리엔테이션의 강화가 필요하며 교사들과 함께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성지원의 경우 단기간에 효과성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음으로 치료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단시간에 끝나는 효과성을 나타내기보다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원예심리치료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된 변화와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1] 강해자. 원예치료가 아동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 [2] 김경준. 아동·청소년. 청소년 투자에 관한 생애주기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원연구. 2008.
- [3] 김형길, 김인외, 사회복지의 이해, 한일장신대학교, 신아출판사. 2002
- [4] 김홍열. 원예치료학 이론과 실제, 한국원예치료연구센터,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척도핸드북,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학지사. 2001

- [5] 박영신. 초등학생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원예치료의 효과,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 [6] 신용균. 원예치료가 빈곤결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 [7] 이병진. 사회기술원이 소년소녀가장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숭실 대학교 대학원박사논문. 1996.
- [8] 이일동. 원예치료가 빈곤결손가정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 [9] 이윤숙. 원예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집중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0] 주은연. 원예치료가 학습부진아의 행동특성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11] D, E, Papalia 외. 인간발달 정옥분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2.
- [12] L.B Breen. The Aging I Ind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ed, Tibbit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 [13] Hass, K, Simson, S. P. and N. C. Stevenson. "Older persons and horticulture therapy." Simson. S. P. & Straus, M. C. Ed. Horticulture as therapy-principles and practice. The food products press, New York. 1998.
- [14] Kaplan, M. "USE of sensory stimulation with Alzheimer patients in a garden setting. "Joel Flagler and Raymond P. Poincelot, eds. People-plant relationships: Setting research priorities. Anational symposium (proceedings). Hayworth press, Inc. Binghamton, NY 13904-1580. 1994.
- [15] Mooney, P. Assessing the benefits of a therapeutic horticulture program for seniors in intermediate care, P.173-194. In: M. Francis, P, Lindsey, and J. s. 1994.
- [16] NASW. Working definition of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13(2). 1958.
- [17] Rice(eds). The healing dimension df peo ple-plant relations: Proceedings of a research symposium: 24-27 March Univ, Calif,, Davis, Des, Res, U. C. 1994.
- [18] Simson, S. and Haller, R. Horticultural therapy education and older adults, p125-139, In: S.E Wells (ed), Haworth press, New York. 1997.
- [19] B, B. Solomon. Black Empowerment. "Social Work in Oppressed Communit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강 종 구(Jong-Gu Kang)

[정회원]



- 2007년 8월 :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학석사)
- 2010년 8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3년 ~ 현재 : 전주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의료

이 남 숙(Nam-suk Lee)

[정회원]



- 2011년 2월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2010년 3월 :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2004년 11월 ~ 현재 : 한국원예심리치료협회 이사장

<관심분야>
사회복지, 원예심리치료